

實甫 金榮秀 教授의 憲法學과 生涯

참석: 김영수 교수(성균관대학교)

김형성 교수(성균관대학교)

박상철 교수(경기대학교)

김일환 교수(성균관대학교)

지성우 교수(단국대학교)

김명식 교수(목포대학교)

기록: 홍석한 조교(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정희성 조교(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

일시 : 2005년 12월 27일(화) 10:00-12: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김영수교수 연구실

I. 對談을 시작하며

김형성 :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에서 25년을 봉직하시다가 내년 2월에 정년퇴임하시게 되는 實甫 金榮秀 선생님을 모시고 그 간 헌법학의 외길을 걸어오신 선생님의 학문적 발자취와 그 뒷이야기, 인생철학 등에 대하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대답은 마침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에서 선생님의 정년기념호로 발간하는 성균관법학 제17권 제2·3호에 기록으로 남겨서 學者로서, 成均人으로서, 또 한 人間으로서의 훌륭한 인생을 살아오신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과 생애를 후학들과 후배들이 귀감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우선 대답에 앞서 實甫 金榮秀 선생님에 대해 간략히 소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40년 경남 합천에서 출생하셔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합천과 대구에서 마치시고, 1959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셨습니다. 그 후 1964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1966년에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하셨고, 1980년에는 “大韓民國臨時政府의 地位와 그 憲法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1972년에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고, 1981년에 성균

관대학교 법과대학에 부교수로 부임하셨습니다. 또한 1986부터 1987년까지 獨逸 München大學 政治公法研究所에서 交換教授로 재직하시면서 독일헌법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 간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론」, 「한국헌법사」를 비롯한 다수의 저서와 학술논문을 집필하시는 등 왕성한 학문적 연구활동을 보여주셨으며,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시는 등 학회활동도 활발히 하셨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업적 외에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대외협력처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학교행정업무도 훌륭히 수행하셨으며, 학교법인 경기학원·동서울대학 이사,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위원 등 대외활동도 활발히 하셨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에는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담은 선생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배출한 제자 교수님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뜻 깊은 자리입니다. 먼저 박상철 교수께서 한국헌법사 연구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實甫 金榮秀 선생님의 헌법학적 관심에 대한 대담을 해 주시겠습니다.

II. 韓國憲法史 研究의 泰斗, 實甫 金榮秀 선생님!

1. 헌법학에 대한 관심

박상철 : 우선 선생님께서 언제부터 학문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셨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영수 : 예, 오늘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의 제자들이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한 것이 1959년입니다. 입학 이후 처음부터 고시공부보다는 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아래서 철학과 어학 특히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공부하면서 학부를 졸업하였고 1964년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원에서 문홍주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당시 헌법학계의 최고 원로이신 문홍주 선생님과 사제간의 인연을 통해서 더욱 학문에 대한 의지를 굳게 하였습니다.

2. 헌법학연구를 시작하면서 만나게 된 선생님이나 스승님들

박상철 : 평소에 저희 제자들은 선생님께서 평생 동안 만나오신 많은 스승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이 기회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수 : 성균관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박사과정을 마친 후 오늘날까지 연구를 해 오면서 많은 공법학자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에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문홍주 선생님이 석사·박사과정의 지도교수셨고 지금까지 약 45년동안 제자인 동시에, 조교인 동시에, 교수로서, 학문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특수한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한창규 교수님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선생님은 제가 대학교 2학년때 독법원장을 강의하셨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제 사촌형님과도 친한 친구이셨고 해서 당신 댁에서 학문과 장래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형법을 강의하신 신동욱 선생님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 가장 오래 봉직하셨고 퇴임하실 때에는 제가 기금을 모으고,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정규상 학장의 도움을 받아 처음으로 선생님의 퇴임논문집을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매우 존경하였고,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여수 선생님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제가 학교다닐 때 학과장님이었고 또 인품이 온화하시고 제자들을 많이 포용하셨습니다. 49세의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만 당시 학생들의 고민도 잘 들어주셨고 잊을 수 없는 은사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유진오 선생님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유진오 선생님과 건국헌법의 제정과 관련해서 선생님의 자택에서 두 번을 만나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진오 선생님은 당신이 제헌헌법 초안을 만드셨다고 주장하셨고, 저는 일본 행정고시 동지회인 최하영·장경근·강명옥씨 등등이 만들었지만 친일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초안이라는 비난이 두려워 이 초안을 유진오 선생님에게 드린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진오 선생님은 최초로 헌법을 담당하는 보성전문 강사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진오 선생님은 본인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편지를 두 번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황산덕 선생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법과대학 학장으로서 형법학의 거두로서 등산도 함께 많이 다녔고 학장을 마치고 장관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선 선생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조교로 있을 때에 성균관대학교 고시반을 담당하는 교

수님으로 계셨는데 강행군을 하셔서 고시합격자 수를 대폭 늘리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당시 40명 고시합격자 중에 성균관대학교 출신 7명이 합격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을 전공하신 김정균 선생님을 잊을 수 없군요. 모교에 교수로 오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대 법대에서 평생 동료교수로 지내온 고상룡교수는 남다른 인연이 있는 동료교수입니다. 잊을 수 없는 친구지요. 그 외에 김종원 교수님, 이범찬 교수님, 김운용 교수님, 김옥곤 교수님, 정성근 교수님, 임홍근 교수님 등 여러분을 잊을 수 없지요. 그 외에 또 공법학자로 김도창 교수님, 김철수 교수님, 서원우 교수님, 서주실 교수님, 안경환 교수, 성낙인 교수, 윤명선 교수 등은 교수로 지내는 동안 가까이 지낸 분들입니다. 그리고 모교에서 재직하시던 장을병 전 총장, 정범진 전 총장, 심윤중 전 총장과 현 서정돈 총장 등도 가까이 지낸 분들입니다.

3. 한국헌법사 연구

가. 한국헌법사 연구의 계기와 중요성

박상철 : 선생님께서는 헌법학의 방대한 연구분야 중에서도 한국헌법사 분야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개척하시고 집대성하신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헌법사 분야를 연구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김영수 : 저는 성균관대학교에 있으면서 국내에서 계속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학위논문을 쓴 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박일경 선생님, 문홍주 선생님 등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임시정부는 하나의 게릴라 단체로서 임시정부 헌법은 하나의 강령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부정하고 독립을 위한 헌법이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헌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박사학위논문의 통과가 세 번이나 연기되는 끝에 어렵게 학위를 받았습니다. 1년 6개월을 심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실이 되어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헌법학을 공부하면서 당시 조교로 있던 박상철 교수가 항상 한국헌법사를 공부해보자고 계획을 짜서 제안을 하였고 본인이 과감히 연구검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자가 없었다

면 이루지 못했을 일입니다. 특히, 김형성 교수, 김백유 교수, 박상철 교수, 윤재만 교수, 김일환 교수, 지성우 교수, 김명식 교수 등등의 헌법학계에 쟁쟁한 제자들이 있어서 각 장마다 도움을 주어서 제가 한국헌법사라는 책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란 본래 스승과 제자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는 정년때에 이것을 완성하려고 하였으나 5년 정도 앞당겨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로서는 대단히 만족스러웠고 이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이 책을 더욱 발전시켜서 공동명의로 5권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곧 실현되리라 봅니다.

나. 한국헌법사 출간

박상철 : 특히 2000년에 출간된 한국헌법사는 법학은 물론 사회과학 전체적으로도 귀중한 연구업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이 연구서는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 된 바도 있습니다. 이 저서를 집필하게 된 동기와 집필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과 보람있었던 점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수 : 한국헌법사를 출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짜주시고 자료를 많이 보내주시고 하셔서 순탄하게 잘 끝났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서론부분입니다. 그다음 제가 전공이 되지 않은 분야가 많았습니다. 사회주의국가헌법은 박상철 교수가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고 고조선 이후 임시정부헌법까지는 제 전공이었으나 그 이후부터 제1공화국헌법은 김형성 교수가, 제6공화국헌법은 김일환 교수가, 나머지는 김백유·윤재만 교수가 큰 도움을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니까 완성이 되었습니다. 당시 조교였던 김명식 교수가 이를 체계화하고 정리하였으며, 특히 비판을 붙이는 부분도 어려웠는데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이루는데 많은 교수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도움을 받아 5권 정도로 공동명의로 집필하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다. 향후 한국헌법사 연구계획 및 후학에 대한 고언

박상철 : 앞으로도 선생님께서는 계속해서 한국헌법사 연구에 매진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연구계획과 이 분야에 대하여 관심있는 후학들에게 바람직한 연구자세와 방향등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수 : 여러분 전부 다 현직교수로서 각자 나름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고 유명한 독립된 대학의 교수로서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은 훌륭한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으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좀 더 보탬될 수 있는 말이라면 각자 전공 테마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성균관대학교의 공법전통은 위로는 문홍주 선생님께서로부터 여러분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우수하며 우리나라에서 큰 헌법학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모두가 한 몸이 되어 우리나라의 통일을 대비하여 통일헌법에 대한 전망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학자의 길

가. 왕성한 학회활동

박상철 : 먼저 선생님께서는 헌법학자로서 왕성한 연구활동과 더불어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시는 등 활발한 학회활동을 통하여 한국헌법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러한 학문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과 관련 학회가 앞으로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나는 헌법학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로서 나의 길을 걷는 데에 충실했습니다. 충남대학교에 약 10년간 있다가 80년대 초 성균관대학교에 온 이후 학문적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공법학파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학회활동을 할 수 있었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홍주 선생님께서 공법학회의 창시자이시고 10년 동안 주도해 오셨고 또 이후에 제가 노력하여 공법학회와 헌법학회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후학인 김형성 교수가 이번에 헌법학회 회장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헌법개정문제가 많이 다루어질텐데 이와 관련하여 관련 학회가 많은 활동을 해 주길 바랍니다.

나. 바람직한 학문연구자의 모습

박상철 : 선생님께서 도시락을 들고 다니면서 연구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연구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연구업적을 남기셨는데 학문의 길로 들어서려는 후학들에게 남기고 싶은 좋은 말씀이 있으

시면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 제가 조교생활을 할 때 봉급이 8천원이었습니다. 그걸로 라면 두 박스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면을 보름동안 먹으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라면조교생활을 4년 하다가 28세에 강의를 처음 맡았습니다. 당시 성균관대학교에서 영법원장을 강의했습니다. 강의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문홍주 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학자의 길은 매우 어렵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견디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중도에 공부를 그만두고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외롭고 힘들 땐 혼자 백운대, 도봉산 등을 오르며 바위와 싸우며 하늘에 소리치곤 했습니다. 그렇게 빈털터리 청년이 학자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로 인내하던 끝에 1972년 충남대학교 전임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학문은 외길입니다. 소가 걸어가는 마음으로 외롭지만 스승과 선배들과 협력하며 좌절하지 않고 우직하게 걷기를 바랍니다.

5. 교수의 길

박상철 : 지금과는 달리 예전에는 대학의 전임이 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 교수가 되셨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충남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모교로 오시게 된 계기 및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수 : 교수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박사과정 재학 중이던 1972년에 충남대학교에 법학과는 자리가 없었고 행정학과에 공법교수 자리가 있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영어와 독일어를 봤는데 15명이 지원을 했고 저와 다른 한 사람이 마지막 경쟁이 되었는데 시험점수가 더 높았던 저 대신 충남출신인 그 사람을 기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장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전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헌법을 가르친 것도 아니었고 영법원장, 국제사법 등을 강의하다가 4, 5년 후에 전공으로서 비교헌법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문홍주 선생님께서 법제처장, 문교부장관을 역임하시고 부산대 총장으로 가시게 되었을 때 문홍주 선생님과 한창규 교수님의 추천으로 문홍주 선생님의 후임으로 1981년에 성균관대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충남대학교에 있을 동안에도 사실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의를 계속하였으

니까 충남대학교 9년6개월, 이후 성균관대학교 24년, 합해서 35년간 성균관대학교에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조교로 있던 3년을 더하면 약 38년이 됩니다. 모교에 와서 매우 좋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Ⅲ. 模範的인 成均人, 實甫 金榮秀 선생님!

김형성 : 선생님께서는 법과대학은 물론 성균관대학교 발전의 산 증인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과대학의 독립, 재단의 인수과정, 의과대학의 유치 등 고비고비마다 선생님께서 활동하신 노고가 배어있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1. 성대 발전 역사의 산 증인이자 주춧돌

가. 행정활동

김일환 : 선생님께서는 학술활동 및 학회활동과 더불어 성대 발전에도 기여하신 바가 큼니다. 먼저 선생님께서는 대회협력처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학교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험하셨던 귀중한 기억들을 펼쳐주실 수 있으실런지요.

김영수 : 정범진 총장시절에 대회협력처장을 맡았습니다. 가장 큰 것은 재단영입관계 또는 의대설립관계 그리고 심산 김창숙 선생의 묘소정비와 학교발전자금모집 등입니다. 그런 것들이 학교에 협력을 많이 한 부분이라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 재단(삼성)영입

김일환 : 다음으로 선생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가 1990년대의 침체기를 지나 다시 중흥하도록 일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성균관대학교를 인수하는 과정과 의과대학유치의 산 증인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내용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시는 건 어떠신지요.

김영수 : 재단영입관련해서 한 일이 그다지 많지도 않고 부끄러운 일입

니다. 1964년도에 대학원에서 문흥주 선생님을 처음 만났는데 선생님의 개인조교로서 그 당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을 교정하면서 매일 선생님 댁에서 만났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가 그 당시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선생님의 큰 매형이시고 숙대 총장이자 성균관 유림이사장이셨던 김두중 의학박사와 서울상대 학장이시고 故 이병철 회장과 친구이셨던 둘째 자형인 권오혁 선생에게 이야기해서 김두중 선생님은 성균관 유림을 설득하고 권오혁 선생은 故 이병철 회장을 설득하여 삼성그룹이 성균관대학교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흥주 선생님과 김두중, 권오혁 선생님의 협력으로 삼성그룹이 성균관대학교를 인수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총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문흥주 선생은 부산대 총장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거절 하였고 문 선생님의 둘째 매형이신 권오혁 선생이 삼성그룹이 성대를 인수한 이후 첫 총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기억에 따른 삼성그룹이 성대를 인수한 첫 과정입니다. 이후 봉명그룹이 재단으로 있으면서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장을병 총장 이후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새로운 재단의 영입과 의대신설을 소망하였습니다. 정범진 총장 시절 본인은 대회협력처장을 맡았는데 그당시 재단 이사장은 백남익 박사님이셨고 본인이 대단히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다수의견은 의과대학을 먼저 설립하고 삼성그룹을 재단으로 영입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으로 내가 기억하는 분은 故 조만후 변호사입니다. 故 조만후는 본인의 제자이며 자주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조 변호사에게 강력하게 의대설립을 건의하였지요. 조 변호사는 김영삼 대표의 비서실장이었고 그후에는 정무차관을 지냈는데 당시 교육부, 보건복지부, 청와대 등과 적극 조율하여 성대가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결국 의과대학의 신설 및 삼성그룹의 재단 영입은 성균인의 공동작품이었고 특히 故 조만후 변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고인이지만 동문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신 점에 대하여 머리숙여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최열곤 교육감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숨은 기록을 경험자로서 남기고 싶습니다.

다. 심산사상연구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경위

김일환 :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심산사상연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으셨는데 어떤 경위로 받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영수 : 초대 총장인 심산 김창숙 선생과는 고향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김창숙 선생은 독립운동가로서 유림의 대표적인 학자였고 漢學者이셨던 제 증조부님과 동일한 시대의 학자이십니다. 대외협력처장 시절 수유리 심산선생의 묘에 가보니 여기저기 무너지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영록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약 2천여만원을 모아서 묘터를 고치고 계단을 고치고 조경을 하는 등 주위를 다듬었습니다. 또 제사용 그릇도 없는 상태라 사비를 들여 祭器를 사서 기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당시 학교에 아직 심산선생에 대한 연구소가 없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연구실을 하나 어렵게 얻어서 심산사상연구회 연구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에 이러한 뜻을 기리시겠다고 심산사상연구회 회장님께서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김일환 : 감사패를 받으실 때 감사패만 주는 다른 모임이나 학회와는 달리 벽사 이우성 교수님께서 친히 漢詩를 지어주시고 창사 이춘희 교수님께서 병풍에 그 글을 써주셨는데 그 내용이 참 감동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 부끄럽습니다. 이우성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낳은 동양 최고의 漢學者입니다. 이우성 선생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 문집을 지을 때도 도와주시고 저를 후배로서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심산사상연구회로부터 받은 감사패에 실려 있는 한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너무 칭찬해 주셔서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孝烈家孫金實甫
平生風義仰心山
好修遺墓勤參會
卅載嘉名僚友間

實甫(金榮秀)는 孝烈錄이 나온 家門의 子孫
平生의 風義 心山先生을 慕仰하였네
墳墓를 좋게 補修하고 자주 會議에 나와
그 아름다운 이름 同僚들 사이에 알려졌네.

心山重創我成均
育得英才耀四鄰
最是松岡有德在
尊賢樂善有斯人

心山先生이 우리 成均을 再建하셔서
英才를 길러 四方에 빛을 내었네
그중에 松岡의 遺德 몸에 지녀
賢을 尊重하고 善을 즐기는 이 사람 實甫였네

※ 孝烈錄: 김영수 교수의 고조모님의 효녀와 열녀에 관한 유림들의 저서

松岡文集: 김영수 교수 증조부님의 문집

2. 법대 발전의 중추적 공로자

가. 사마헌 기틀 마련

지성우 : 선배님들의 과거 영광에는 못 미치지만 요 근래에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선생님께서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과거에 선생님께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사마헌 학생들을 무던히도 괴롭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억어린 회고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 원래는 사마헌이 아니라 그냥 고시반이었습니다. 문홍주 선생님의 매형이신 권오혁 선생님이 총장으로 계실 때 황산덕 선생님, 김기선 선생님, 이건호 선생님 등 국내의 거장 학자분들을 법대에 많이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황산덕 선생이 법대 학장을 맡고 김기선 선생님이 총장 직속으로 학장급 대우를 받는 고시반 지도교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조교로 있었는데 학문적으로는 문홍주 선생님의 조교로 있으면서도 학과장이신 김여수 선생님의 심부름도 하게 되고 동시에 고시반 심부름도 하게 되어 매우 바쁘게 지냈습니다. 김기선 선생은 고시반 학생들을 해인사, 마곡사 등 여러곳을 방학중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마다 머리를 깎게 하였습니다. 또 매일 시간마다 출석체크를 하게 하였고 체벌도 하였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사마헌의 역사는 김기선 선생님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수가 되어 사마헌을 맡았을 때도 그렇게 하드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이후 정규상 교수가 사마헌을 맡았을 때는 고시반을 위한 장학금을 모아 이를 청록장학금이라고 하였는데 문덕호, 정일기, 심준기, 김상열, 황일정, 고상룡 교수 등 많은 분들이 소중하고 귀한 장학금을 기부해주셨습니다. 이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였지요. 돌아보면 사마헌과 고시준비학생들에 대한 애환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성대발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고시반 선배들의 어려움과 노력을 통하여 오늘날 자랑스런 법과대학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봅니다.

나. 법과대학의 독립

지성우 : 1980년대 법정대학에 소속되어 있던 법학과가 법과대학으로 독립될 때 역시 선생님은 그 과정을 몸소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 당시 제가 법정대학 소속이었고 신동욱 선생님이 초대 법정대학 학장을 지냈습니다. 이후 김정균 선생님이 1980년도에 학장을 맡았을 때 독립의지를 내비치셨습니다. 이에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당시 김상열 남양설비사장이 그당시로는 거금인 천만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분이 도움을 주셨고 한창규 학과장님과 문교부국장인 최열곤 선배님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바로 그 해에 법과대학을 독립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김종원 선생이 초대 학장을 맡았습니다. 이것이 명실상부 법과대학의 출발이요 발전의 시작입니다.

다. 법과대학 학장 역임

지성우 : 선생님께서는 법학연구소장, 법과대학 학장을 역임하시면서 많은 발전기금을 헌신적으로 모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활약상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김영수 :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 일입니다. 다만 주로 궂은일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방배동에 살 때 한용교 선배와 바로 옆 동네에 살았습니다. 한 선배님께서는 지금까지 20여억원을 기부하셨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주셨습니다. 남양설비사장 김상열도 수천만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제가 대외협력처장으로 있을 때 김홍규 선생님과 가까웠던 조병두 선생에게 명예박사학위를 드리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조병두 선생이 학교에 그동안 30억여원이 넘게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드리고자 심부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법학관을 새로 지을 때 가깝손 동창회장, 최열곤 선배님, 한용교 선배님, 조성욱 선배님, 허태열 의원, 김용구 사장, 최병윤 선배님 등 여러 동문 선후배님들이 17억원을 모아 학교에 기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선후배들의 학교사랑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 제가 한 일이라고는 단지 학교의 원로로서 그분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 것뿐입니다.

라. 학부제로부터 단과대학 수호

지성우 : 1990년대 후반기에 법과대학을 다시 학부로 전환하려는 등 법과대학에 좋지 않은 변화의 움직임들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방과제로서 그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수 : 1990년 후반에 법대와 의대를 학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구라과 대학들의 예를 들면서 신학대학, 법과대학, 의과대학은 대학의 상징으로서 학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단, 대학본부, 법과대학이 일치단결하여 법과대학은 단과대학으로 존립하기로 결정하고 그 이후로 법대의 정원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새로운 법학관을 건립하기로 하는 등 학교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마. 성대법대 동창회, 성균관법학회의 창설

지성우 : 선생님께서는 성대법대 동창회, 성균관법학회를 창설하는 데에 주역이십니다. 이당시의 노력과 노고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런지요.

김영수 : 성균관대학교 법대 동창회가 최초로 설립되게 된 계기는 신동욱 선생의 정년기념 논문집 발간과 연결됩니다. 신동욱 선생님의 정년기념 논문집 출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내가 기금을 모으고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정규상 학장이 여러 가지 궂은일을 많이 담당하였습니다. 성대법대 동창회는 바로 신동욱 선생의 퇴임식때 설립되어 출범하였습니다. 최열곤 전 서울시 교육감이 초대회장이 되고 가깝손 회장과 제가 초대총무를 맡았습니다. 성균관법학회 창설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2004년 7월에 설립의 필요성이 자연발생적으로 제기되어 신법학관에서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성대법대 출신교수가 전국각지에 1백여명이 훨씬 넘습니다. 올해도 1월 19일에 제2회 모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학회로서 잘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제자 양성

지성우 :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감동하게 만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교수가 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헌법은 물론 행정법, 민법 등 그 누구든 선생님의 제자라면 전국 각지의 여러 대학들에 적극적으로 추천하셨고 그리하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전임이 된 학자들이 수십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험하신 어려움과 보람된 기억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수 :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한 것이 있습니까? 성대 공법에 문흥

주 선생님, 한창규 선생님 등 어른들이 계셔서 가능한 것이었지요. 협력이 참 잘 되었습니다. 제자가 한명 나오면 세 명이 합해서 전국을 누볐습니다. 그 첫 출발점은 이미 정년퇴직하신 김계환 교수님이 청주대학교에 교수로서 자리잡게 된 것으로 좋은 예가 되겠군요.

그 이후 현재 30여명의 성대법대출신 공법교수가 전국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영광이자 즐거움입니다. 이는 졸업생으로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문홍주 선생님과 한창규 선생님의 산악회에 수십명이 함께 다녔었는데 전원 교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유학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문홍주 선생님의 등산 멤버는 전원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교수와 제자간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교수로서 가야할 길이고 또 보람된 일입니다. 제 회갑기념논문집인 「헌법학의 제문제」에 논문을 실었던 교수들이 35명으로서 전부 직계제자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단행논문집을 만들어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보람이고 여러분의 보람입니다. 같이 더불어 성대법대학과를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또 기회가 오면 제자의 양성을 위해 힘 닿는데까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IV. 진짜 사나이, 實甫 金榮秀 선생님!

김명식 : 선생님께서는 학자로서 성균인으로서의 길 못지않게 한 인간으로서 살아오신 길도 제자와 후학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1. 선생님의 雅號

김명식 : 먼저 선생님의 아호가 實甫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호의 의미와 이를 얻게 된 배경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김영수 : 모교에 교수로 오니까 졸업생출신인 교수의 숫자가 처음엔 적었습니다. 이우성, 한창규, 신현철, 장을병, 정범진 등 몇 분과 다음세대로 고상룡, 심윤중, 정봉화 선생 등 성대출신 교수가 30-40명 정도였습니다. 그 중 가장 강력한 정신적 지주가 이우성 국문과 교수였습니다. 역할도 많이 하셨죠. 매해 연초가 되면 40여명 정도가 그분 댁에 세배를 갔습니다.

특히 저희 또래인 조동훈, 심윤중, 고상룡, 정봉화, 저 등을 좋아하셨는데 저희들 5명 각자에게 그 이름과 성을 보시고 호를 지어주셨습니다. 저의 경우는 맺을 실(實)자 어조사 보(甫)자를 주셨는데 제 이름이 너무 화려하므로 내실을 기하라, 더욱 신중하라는 의미로 주셨습니다. 약 20년 전의 일입니다. 또 그때 이우성 교수님과과의 만남이 마음에 남아 인연이 되어 민족의 혼을 담아내는 ‘우리의 학문’을 해야겠다는 결심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저의 가문의 여러 문집과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론, 한국헌법사를 출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호는 성균관대학교의 선배가 지어준 것으로서 제게는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지극한 효성

김명식 : 제자들이 선생님을 뵈면서 또 한번 감동하는 것은 부모님과 집안에 대한 끝없는 효와 사랑의 실천입니다. 지금도 고향에 계시는 노모에게 지극정성을 다하시고 효열록(孝烈錄)과 송강문집(松岡文集)을 발행하시는 등 인의예지를 아는 성균인으로서 세인의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학들에게도 이와 관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라 어른을 모시고 살며 또 가족이 많은 집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특히 부모형제에 대한 애정과 정성을 가지고 사는 것은 특히 유림집안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희 집안의 고조모께서는 많은 역경을 이겨내신 여인으로서 신사임당과 같은 행실을 보이셨는데 유림들이 고조모님의 일대기를 효열록이라는 책으로 남겼습니다. 바로 이 효열록을 제가 번역하여 세계 유수한 대학의 도서관에 보냈습니다. 또 증조부님의 저작들도 제가 편집을 해서 송강문집으로 만들어 마찬가지로 여러 도서관에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의 집을 새롭게 보수하고 분묘도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저로서는 당연한 일일 것인데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저의 가문의 문집을 만드는데 이우성 선생님과 송제소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조교였던 성재호 교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은사에 대한 헌신적인 모습

김명식 : 제자들이 감동하는 것 중 또 하나가 해암 문흥주 선생님에 대한 선생님의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40여년 가까이 사제지간에 단 한번도

얼굴을 붉힌 적이 없이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문홍주 선생님에 대한 추억과 스승에 대하여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 사제지간에 당연한 것을 굳이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또한 저에게 제자로서의 예를 다 해주고 있구요. 성대법대는 참 애정이 강한 곳입니다. 문선생님은 1964년에 만나 지금까지 45년간 스승으로서 당연히 모셔왔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젊은 시절 저술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아침에 선생님께 가서 밤늦게까지 저술을 타이핑하고 교정을 하는 일을 6, 7년간 했습니다. 기쁘고 즐거웠고 또 그런 일을 하면서 배운것들이 쌓여서 대학의 교수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수가 된 것도 사제지간의 이러한 훈련과 교육을 하는 한 학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득, 어느 날 문선생님께서 등산을 가자고 하셔서 처음으로 세검정에 갔었는데 당신도 공부하실때에 참 어려웠다고 하시면서 이런저런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던 것이 기억납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화를 절대 내지 않으시고 부드러우면서도 세심한 분이십니다. 돌이켜보면 문홍주 선생님을 비롯하여 황산덕, 한태연, 유진오 선생 등과 같은 大家가 되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선후배간의 애정은 매우 깊고 또 엄격했습니다. 등산을 다닐 때의 추억이 큰 즐거움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도 학문적인 모임 외에 등산과 같은 동호모임을 가지시면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기 바랍니다.

4. 선생님의 가족

김명식 :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가족 사랑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영수 : 저는 7남매 중의 장남입니다. 사촌이 23명이나 되는 대가족입니다. 다들 매우 엄격하고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부인이 있고 딸은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교에 교직원으로 있고, 아들은 MBA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올해 딸을 시집보내는 것이 소망인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V. 對談을 마치며

박상철 : 요즈음 로스쿨 도입 등 법학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혹시 충고나 격려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요.

김영수 : 현재 성균관대학교는 GSB의 설립·운영과 반도체학과의 신설 등 삼성이라는 브랜드와 민족 성대가 힘을 합하여 큰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은 모두 긍지를 가지고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등 각 계각층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이 도입될 경우 우리 성균관대학교는 반드시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전통과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법학도로서 갈 길을 조기에 스스로 결정하여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박상철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 오늘 가장 좋아하는 제자들이 자리를 마련해서 나의 걸어온 길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기록으로 남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생각하면 학자가 되려는 마음은 1964년 문홍주 선생님을 만났을 때부터 가진 것인데 그러한 결심이 결실을 맺고 이렇게 성균관대학교에서 정년을 맞이하게까지 되니 정말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많은 제자들이 교수로서 법조인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며 더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학자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또 결코 화려하지 않은 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학교에 계시는 동안 훌륭한 학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